

【우연의 일치 ~모모테나시~】

안녕하세요. 오카야마시장 오모리입니다

오카야마시에서는 호감도 향상을 위한 정책의 하나로, 올해엔 오카야마는 정말 좋은 곳이구나 하고 느낄 수 있도록 오카야마 특산의 모모

「복숭아」와 오모테나시 「대접」을 붙여서 「모모테나시」를 주제로 적극적인 정보발신을 하기로 지난 23일 발표했습니다.

이후 「모모테나시 선언」에 찬성하시는 분들이 포스터의 모델이 되어 「모모테나시 선언포스터」의 작성과, 「모모테나시」를 주제로 한 시나리오 PR동영상 공개 등, 여러 가지 홍보를 전개합니다.

여기까지는 일반 PR활동의 흐름과 같습니다만 이번 「모모테나시」의 발표 시 조금 놀랄일이 있었습니다.

놀랐다는 것은 오카야마시의 발표에 앞서 16일 오카야마 현과 토토리 현이 동경에서 전개하는 공동안테나 숲의 캐치프레이즈를 「모모테나시」로 할것을 발표했습니다.

저는 17일부터 19일까지 오카야마시민우호친선방한단의 단장으로서 국제우호교류도시인 한국 부천시를 방문 중이었습니다. 이 이야기를 들은 것도 부천국제 환타시틱영화제 (사랑·환상·모험을 주제로 한 작품을 소개한 영화제로 세계 각지에서 다수의 화제작을 소개함)의 개막식 직전이었습니다.

관계 직원에게 이후의 대응에 관해 물었더니 지금부터 검토한다고.

저로서는 이 우연한 일치는 오카야마시의 지명도를 높이는데 큰 기회라고

생각해 「그대로 『모모테나시』 로 하자. 양현과 조정하고 싶다」 고 전했습니다.

이 생각에 대해서는 이바라키 오카야마현 지지, 히라이 토티리현 지지가 저의 생각에 호의를 가지고 찬성해 주셔서 이후로 이 「모모테나시」 를 최대한 활용해 오카야마현 · 토티리현과 같이 연계하며 지역의 이미지를 높이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.

더구나 이 우연한 일치 무대가 되었던 한국 부천시는 저로서는 이번이 처음 방문이었습시다만, 한국의 문화와 풍토 그리고 부천시의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을 직접 접할 수 있어서 대단히 유익한 방문이 되었습니다. 이번 방문을 계기로 이후 양 시의 교류를 한층 더 깊이 하리라 다시 한 번 다짐했습니다.

그러나 이번 방문에서도 소주와 맥주를 섞은 「폭탄주」 를 한 번에 마시는 강행군의 술대접은 아직 익숙하지 못해 조금 놀랐습니다.

이 「폭탄주」 는 이전 위스키와 맥주를 섞은 것이었던 것이 최근에는 위스키 대신에 소주를 사용하는 것이 주류가 되었다고 합니다. 확실히 위스키와 비교하면 소주가 알코올도수가 낮지만 잔이 많이 돌면 소주도 위스키도 취하는 건 마찬가지. 이것만은 전혀 진보하지 못했습니다. 귀국하는 비행기에서는 와인을 쏟고. 반성, 반성….